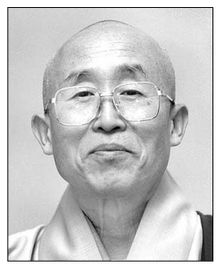
월운 스님 은관문화훈장 수훈…15일 문화의 날 기념식서



문화관광부는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한 200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서훈자와 '제37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자를 13일 발표했다.

월운 스님은 1965년부터 37년에 걸쳐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완역, 전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불교문화 유산의 계승 및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불자인 한국무용가 김백봉 선생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또 국악인 신영희, 홍성덕 명창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15일 전주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실시된다.

조용수 기자

범여권 지관스님 후보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윤곽 드러나며 본격화

범여권(일승회 · 화엄회일부 · 조계종 22개교구본사)이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한 가운데, 월정사 은해사 금산사 주지스님 등은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뜻을 함께했다.

범여권 중심인 '32대 총무원장 추대 상임위원회' 간사 장적 스님은 10월 12일, "상임위 3차 회의 결과 지관 설정 도영 스님 중 만장일치로 지관 스님을 제32대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림회 · 금강회와 조계종 10개(대리 2개 포함)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13일 범야권의 총무원장 후보 단일화에 뜻을 같이한 뒤, 후보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오후 1시(잠정)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종책모임 금강회와 보림회는 12일 "세 분의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제32대 총무원장으로 합의 추대할 것을 범여권의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추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며 후보 추천 선택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적 스님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다만 합의 추대를 위한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화합승가포럼 토론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화합승가포럼(공동대표 효천 · 종고 · 효범)은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제1차 토론회 '총무원장 인물론과 역할'을 열고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추대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등을 결의했다.

승가운동본부 좌담회

한편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상임대표 수완)는 14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청정선거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 공동본부장단도 14일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을 예방해 종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청정 · 공명 선거에 동참하라"

조계종 원로회의 담화, 고산스님 원로의원 추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12일 청주 보살사에서 13명의 원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담화문에서 "전 종도들은 화합승단에 맞게 종헌종법 절차에 따른 청정한 공명선거와 모든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의를 모아 추대를 하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로회의는 또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만한 선거관리를 위해 엄정중립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새 원로의원에 고산(쌍계사 조실), 전계대화상에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또 원로회의 사무처장 일문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의 임명 동의안도 의결했다. 김원우 기자

11월10일 총무원장선거 태고종, 25일부터 등록

태고종 제 23대 총무원장선거가 11월10일 봉원사에서 실시된다.

태고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환우)는 10월 10일 총무원장 선거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23대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는 총무원장선거법 제4조에 의거해 선거권자인 중앙종회의원 40명이 중앙종회에 참석하여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격은 태고종 재적승으로 연령 만 55세및 승랍 35세 이상으로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02)382-7361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원력과 권력으로 '현대화' 지휘

연재순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上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下

청담 · 경산 스님 종단기반에 노심초사
석주 스님 3차례, 영암 스님 행정틀 잡아

60~70년대 총무원장들…평균 재임기간 1년 안돼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대 총무원장은 어떤 스님들이었을까?

먼저 1962년 초대 총무원장 이후 1980년을 기점으로 조계종의 현대사를 전 · 후기로 나눠 살펴보자. 전반기에는 비구-대처간의 오랜 싸움이 정권의 강압적 중재로 형식적으로나마 통합종단이 꾸려졌다.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연구해온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이시기 혼란의 주 요인으로 우선 종권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과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불교의 역량을 현대화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간의 다툼이 계속됐다고 지적한다. 당연히 60~70년대 총무원장의 고뇌와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김 교수는 "통합종단 초기 종정과 총무원장 가운데 누가 중심에 설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시작됐고, 7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종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노선갈등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지금의 안정을 찾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1962년, 본사 주지 등으로 구성된 50명의 중앙종회에서 비구 측 추천으로 효봉 스님이 초대 종정, 비구였지만 대처측 추천을 받은 석진 스님(재임 62.04.11~62.12.30)이 초대 총무원장을 맡았다.

2대 법용(62.12.30~66.04.12), 3대 경산(66.04.12~67.08.09), 4대 영암(67.08.09~69.09.13), 5대 월산(69.09.13~70.07.22), 6대 · 7대 청담(70.07.22~71.11.25) 8대 석주(71.11.25~73.01.25), 9대 경산(73.01.25~75.10.06), 10대 서암(75.10.06~75.12.05), 11대 영암(75.12.05~76.10.04), 12대 영해(76.10.06~76.12.03), 13대 자운(76.12.03~77.07.23), 14대 혜정(77.07.23~78.01.07), 15대 석주(78.01.07~78.02.03), 16대 월하 스님(78.02.03~80.04.26)등 16명이 1980년 4월까지 약 18년 동안 총무원장 자리를 거쳤다. 따라서 당시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이 채 안됐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청담 스님과 경산 스님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종단의 기반을 다지기위해 노심초사했던 대표적 총무원장으로 꼽았다. 또 김광식 교수는 영암 스님을 뚝심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종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던 스님으로 평가했고, 방송작가 윤청광씨는 어려울 때마다 종단의 화합을 이끌며 위기를 극복했던 석주 스님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대 인물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청담 스님과 경산 스님은 때로는 경쟁적 관계였지만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늘 고민하고, 한국불교의 현대화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16명의 총무원장들 가운데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스님은 법용 스님으로 3년 4개월을 지냈다.

공식적으로 8대, 15대, 23대 총무원장을 맡아 유일한 3선 총무원장으로 기록된 석주 스님은 15대 때 단 27일을 재임해 80년대 이전까지 가장 짧은 재임기간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 가운데 총무원장 출신으로 종정에 올랐던 스님은 청담 서암 월하 스님이다. 통합종단 초대 총무원장이었던 석진 스님(1892~1968)은 남다른 인품으로 많은 불자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조선불교조계종 간부 시절 친일 행적 때문에 역사적 조명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불교정화운동의 화신(化身)으로 불린 청담 스님(1902~1971)은 50~60년대 치열했던 불교정화운동의 한복판에서 "성불(成佛)을 한생 미루더라도 불교정화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서원할 정도로 강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인욕보살'이라 할 만큼 고독한 수행자였다.

경산 스님(1917~1979)은 종단의 혼란을 막고 종단과 종립 동국대의 기틀을 다진 원력보살이었다. 청담 스님과 마찬가지로 역시 1956년 정화불사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탁월한 행정처리와 포용력으로 종단의 기틀을 탄탄히 다져놓고 1979년 서울 적조암에서 입적했다. 공식적인 총무원장 재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열반하기 전날 아침까지 견지동 총무원에서 종무회의를 주재했을 정도로 종단을 위해 헌신했다.

영암 스님(1907~1987)은 문제가 얽혀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특유의 '뚝심'으로 풀어갔던 총무원장이다. 조계종 종무행정의 기본은 영암 스님의 재임기간동안 대부분 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부는 반드시 2권을 만들어 보관하게 하는 등 사찰경제와 행정혁신을 이뤘다.

울해 입적한 석주 스님(1909~2005)은 총무원장을 3차례 본사 주지를 3차례, 종단의 비상시기 부의장과 의장직을 맡았지만 한번도 본인의 원에 의해 직책을 맡지는 않았다. 그러다 문제를 수습하고 나면 스님은 미련없이 총무원장직을 내놓았다. 청빈하고 '무주상(無住相)'의 정신으로 살아온 스님의 포용력은 늘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다. 자비심으로 행정에 임했지만 경우에 어긋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스님은 삼보정재가 헛되이 쓰이거나, 정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鷲山(九河)門徒會 結成文

佛之宗家인 通度寺를 開山하신 慈藏律師의 法統을 繼承하고 靈鷲叢林 通度寺의 無窮한 發展을 爲하여 鷲山(九河) 尊師의 문하인 우리 門徒들은 상호 탁마수행하고 합심단결 할 것을 서원하고, 본 문도회를 결성한다.

또한 九河 尊師의 上首제자인 月下大宗師의 숭고한 얼을 이어 받아 후대 法孫들은 師資相承하여 화합단결하고 佛敎發展과 佛祖慧命을 이땅에 永遠히 빛나게 하기 爲하여 鷲山(九河) 門徒會를 結成한다.

佛紀 2549(2005)年 10月 1日

문도회 결성 발원 제자

월파 초우 목산 진철 성파 현문 성림
산옹 청운 혜남 태봉 재원 정우 명신
향과 영하 중선 능연 운성 재경 현초
동하 원천 <무순>

鷲山(九河)門徒會 總會 召集 公告

通度寺 축산(구하)문도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 하오니 문도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세상을 향해 떠오르는 「축산문도회」를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멋지게 정진합시다.

일시	불기 2549(2005)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통도사 설법전
안건	① 회칙 통과 ② 통도사 현안문제 해결 방안 논의

※사진 지참 요망 (수첩 제작용)

통도사 축산(구하)문도회 회장단

초우, 성림, 향과, 태봉, 청운, 혜남, 법진 합장

축산(구하) 문도회 명단

월하 월은 월정 월주 월인 추봉 호경 혜각 월저 남호 월제 평곡 만성 경우 월남 월봉
월국 월면 보해 월륜 월성 재용 월공 월파 중광 중길 의천 지강 선우
청하 홍법 영철 초우 서주 현파 도열 목산 태응 상우 성파 운하 법초 종진 운성 성림
진철 혜남 현문 태봉 산옹 천진 철환 청운 상수 법혜 법조 영도 지명 능연 성기 덕암
수안 일봉 법산 법천 현근 여산 동원 용문 현오 가열 기후 지원 중선 정산 대원 호성
신행 법진 양일 석봉 덕수 진오 일현 자하 만성 종일 항조 현초 목주 우인 성오 수원
동하 경담 자성 양진 영실 성윤 양우 영노 해원 관우 오심 만천 성현 남천 성본 노우
증도 증악 지운 방원 해중석 현광 지수 자고 기현 구성 해두 진명 오성 이지 삼해
이수 병천 성구 종원 기호 성열 성화 성법 양우 벽해 회암
정우 재경 상경 지용 영재 현근 상운 진성 도응 문성 현기 현원 혜오 혜용 재진 도안
향과 도천 남현 삼경 동주 영수 지운 본원 준수 범해 정안 효선 원근 묘경 묘일 묘원
묘영 보문 묘행 묘산 양관 양행 보안 선준 묘신 호암 재원 재문 재홍 보화 보안 보응
보각 보광 명신 명일 명안 지문 도원 도웅 원천 양현 진산 장해 일승 진오 여해 영화
영월 영도 영봉 영경 석산 법은 수연 동륜 종원 등운 혜원 혜장 홍선 보덕 남도 남곡
남주 덕원 정학 원정 원진 혜우 원묵 원범 정주 시광 명오 신화 원무 선운 마벽 선오
진성 상원 덕진 덕우 도문 덕월 덕문 시공 진공 우보 우학 보덕 남월 동진 효범 대한
조월 삼석 명덕 매물 광산 광석 시원 만행 대운 정로 증관 무진안 우진
범철 혜초 법진 정헌 태암 우암 소암 중암 성일 주봉 임성 유경 안치 동우 만오 만영
만초 진범 진목 진응 진명 진통 진무 현담 일과 일성 지범 지상 지봉 범준 보명 보원
지석 지성 지해 지철 범용 남곡 혜일 혜강 혜종 혜안 예봉 혜공 무위 정인 정원 정무
설문 설운 영봉 영곡 영명 영선 광우 다원 성무 초중 선혜 선오 성혜 성업 성열 선석
선원 선림 선종 서상 서호 용은 서중 서초 도산 도행 도유 도국 현고 도선 만제 도연
도설 무심 도계 도증 자원 자금 혜성 혜원 영봉 영곡 영명 만일
각원 무유 각광 각현 무영 성원 성법 각성 각문 성지 성화 성전 각평 성안 성민 성밀
각심 성념 성재 성륜 각림 성래 원행 무천 신행 지무 무중
도피안 선철 선각 일법 세진 수운 자견 보인 도영 동일 동수 동명 명조
일법 진성 하유 한수 범우 량림 용성 용주 용린 용제 용봉 용파 지성 만성 효성 종백
<무순>

※ 九河 · 月下스님 제자는 비석을 참고, 전체 명단에서 누락된 문도분은 꼭 연락 바람.

전화 055)381-6460 수석부회장 성림